

환자 침을 통해 전파, 공기 감염 안돼... 일반마스크로 예방 충분

‘메르스 공포’ 오해와 진실

14세 이하 감염률 낮아... 사스보다 전파력 약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메르스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포털과 SNS를 중심으로 유언비도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메르스 감염이 지역 사회가 아닌 의료기관 내에서만 확인돼 밀접 접촉자의 자가·시설 격리 조치 등으로 적절히 통제하고 있으므로 교육 현장에서 감염을 우려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

조했다. 보건당국의 브리핑과 자료를 근거 삼아 메르스 관련 올바른 정보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공기중으로 감염되나?** ▲메르스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다. 하지만 공기를 통해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침이나 가래 등 바깥으로 튀는 분비물에 의

한 비말감염으로 전파된다. 보건당국은 숨만 쉬어도 감염된다는 소문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환자들이 다녀간 병원을 방문해도 안전한가** ▲메르스 전파는 환자와 같은 공간에 동시에 머물면서 밀접한 접촉이 있었던 경우에 제한적으로 발생한다. 환자가 이미 거쳐 간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메르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마스크도 효과가 있나** ▲2009년 신종플루 발생 당시에도 일반 마스크로 충분했다. N95 등 의료인이 사

용하는 마스크를 사용하면 오히려 숨쉬기가 답답하다. 완전 밀폐형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비말(침) 감염을 막을 수 있다. **-자택 격리만으로 충분한 조치가 되나?** ▲현재 환자와 접촉했던 의료진 등은 특별한 증상이 없을 경우 자가(자택)격리 중에 있다.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보건소 직원에 증상이 발생하든지 여부를 하루에 2번 확인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국가 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으로 이송해 진단과 치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자택 격리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스(SARS) 등 기존 감염병보다 더**

위험한가? ▲메르스의 치사율은 40%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2002~2003년 중국·홍콩 등에서 감염자가 많이 발생했던 사스의 치사율은 10%대다. 다만 전파력은 사스가 강하다. 환자 한 명당 2차 감염자수를 의미하는 재생산지수가 메르스의 경우 1을 넘기지 않지만 사스는 5 정도다. 2009년 세계적으로 유행한 신종플루도 치사율은 0.07%였지만 전파력이 커서 많은 감염자가 생겼다. **-아이들에게 더 위험한가?** ▲국의 사례를 보면 14살 이하 어린이의

감염 피해는 상대적으로 작다. 사우디아라비아 연구진이 지난해 자국내 통계를 연구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4~5월 사우디의 메르스 환자 425명 중 14살 이하 환자는 전체의 3%에 지나지 않았다. 60살 이상 고령자의 감염률이 가장 높다. 치사율을 놓고 봐도 전체 메르스 환자의 치사율이 39%인 데 견줘 14살 미만 환자는 18%여서 크게 차이가 난다. 국내에선 아직 14살 이하 아동에게서 메르스 감염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 아직까진 아이들에게 특별히 더 위험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연합뉴스

비말감염-환자 체액이 기침으로 튀어 감염

밀접 접촉자-확진·의심환자 접촉한 사람

‘메르스’ 용어풀이

◇2차 감염 vs 3차 감염=1차 감염은 첫 번째 환자가 생겼다는 뜻이다. 현 사태에서는 중동에서 메르스에 걸려 입국했던 1번 환자(68)가 이 경우다. 2차 감염은 1번 환자에게서 병이 옮은 걸 뜻한다. 이 2차 감염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기면 3차 감염이다. 현재 국내에서도 메르스 3차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

◇병원 내 감염 vs 지역사회 감염=지금껏 메르스는 특정 병원의 환자, 환자 가족, 의료진이 걸렸다.

병원 울타리 내에서만 병이 돌았다는 것이다. 이를 ‘병원 내(內) 감염’이라고 부른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메르스가 병원을 넘어 학교나 공공장소 등 지역 사회 곳곳을 덮치는 경우다. 병원과 별다른 인적 교류가 없었던 곳에서 환자가 쏟아진다. 이를 ‘지역 사회 감염’이라 한다. 이 지경까지 가면 2009년 신종플루 때처럼 메르스가 전국에 창궐할 위험성도 있다.

◇비말 감염 vs 공기 감염=비말(飛沫)은 ‘튀어서 흩어지는 물방울’이란 뜻이다. 즉 환자의 침이나 콧물 같은 체액이 재채기나 기침 등으로 튀어 감염되는 경우가 비말 감염이다. 병에 걸리려면 환자 근처에서 체액에 노출되어야 한다. 메르스는 현재 비말 감염 질환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메르스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했는지도 감염 위험을 따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기 감염은 체액이 마른 이후에도 바이러스가 공기를 떠다니면서 곳곳에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다. 전염력이 비말 감염보다 훨씬 강하다. 메르스는 아직 비말 감염만 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한된 상황에서

공기 감염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일부 있어 안심은 할 수 없다. 2012년 발견된 신종 질환이라 규명되지 못한 구석이 많다.

◇확진 환자 vs 의심 환자 vs 밀접 접촉자=확진 환자는 검사를 통해 메르스 감염이 확인된 사람이다. 의심 환자는 고열과 기침 등 메르스 관련 증상이 있긴 해도 감염 여부는 아직 모르는 경우다. 예컨대 폐렴이나 독감 등 유사 질환에 걸렸을 개연성도 배제 못 하는 사람이 이에 속한다. 밀접 접촉자는 확진 환자·의심 환자를 가까이 접촉해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코호트 격리·코호트 병원=코호트(cohort)는 ‘동일 집단’을 뜻하는 통계 용어다. 코호트 격리란 메르스 발병 병동의 환자를 모두 특정 ‘동일 집단’(코호트)으로 묶어 전원 격리에 확실 위험을 줄이는 조치다. 코호트 병원이란 이런 코호트 격리를 하는 병원을 말한다.

◇N95 마스크·음압병상=N95 마스크는 특수 필터로 공기 내의 오염 물질을 걸러내는 전문 마스크다.

방역 대원이 쓰는 마스크가 이거다. N95란 공기 중 95%의 오염 물질을 막는다는 뜻이다. N95 마스크는 감염 방지가 최대 목적이라 착용감은 일반 마스크보다 좋지 않다. 쓰면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든다.

음압병상은 기압 차이를 만들어 공기 중 바이러스를 병실 밖으로 못 나가게 잡아두는 시설로 메르스 확진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곳이다. 병실로 들어가려면 두 개의 문(인터락)을 거쳐야 하고 인터락 사이에는 의료진이 소속할 수 있는 ‘전실’이라는 공간이 있다. 정부가 전염병 치료를 목적으로 만든 음압병상은 전국 17개 병원에 모두 105개가 있다. /연합뉴스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개관

4일 광주 북구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개관식이 윤장현 광주시장과 강기정 국회의원, 송광운 북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개관식에서 지역 작가들이 붓글씨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메르스’ 꼭 알아야 할 10가지

- 1.(정의) 메르스는 중동에서 발생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 2.(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외에도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있을 수 있다.
- 3.(전파) 증상은 감염 후 최소 2일에서 14일 사이에 나타나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전염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4.(전파) 일반적으로 2m 이내에서 기침, 재채기로 나오는 분비물로 전파된다.
- 5.(예방) 기침할 때는 입과 코 휴지로 가리고, 발열·기침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해야 한다.
- 6.(자가격리)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보건소에 연락하고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 7.(진료) 환자와 밀접 접촉을 했거나, 중동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메르스의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 8.(진단) 메르스는 가래, 기관지 세척액의 유전자 검사를 진단한다.
- 9.(치료) 환자는 증상이 따른 치료를 받으며, 중증의 경우에는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 집중 치료를 받는다.
- 10.(장비) 의료진은 손씻기, 일회용 가운과 장갑, N95 마스크, 눈보호 장비를 갖춰야 한다. /연합뉴스

폐질환·신부전 환자 ‘메르스’ 취약

바이러스, 폐·신장 공격...스테로이드 약물 면역 저하 일으켜

빠르게 퍼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도 다른 감염병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감염 여부와 증상 발현 정도에 큰 차이가 있다. 같은 조건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되더라도 감염돼 사망에까지 이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증상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 특히 메르스 바이러스는 폐와 신장을 공격하기 때문에 전신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 같은 만성질환과 신장질환 환자는 더욱 취약할 수 있다. /연합뉴스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메르스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와 마찬가지로 폐에 침범하며, 사스와는 다르게 신장 기능을 망가뜨리는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암이나 인공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 등도 면역이 떨어질 수 있고, 항암제나 장기이식 후 거부반응을 막기 위한 면역억제제, 그리고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도 면역저하 상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매 각 공 고

“요양병원” 운영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매매 및 투자자)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19-1번지 (40m 대로변 접면위치, 건강관리협회 건너편)
대 지: 522.3㎡(158,15평)
연 면 적: 2,073.86㎡(627.96평)
층 수: 지하1층, 지상8층
건축물용도: 병원(요양병원)
허 가 번 호: 2013-건축과-신축허가-108호(2013.10.18)
토지소유자: 서양새마을금고
건 축 주: 서양새마을금고
공사완공예정일: 투자자 계약 후 3개월 완공 예정

※ 매각사유
 - 대출관련 유입물건을 매각합니다.
 - 유입당시 공정을 40% 진행되어 있는 요양병원 건물로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자 하신분께 매각하고자 합니다.
 ※ 계약즉시 토지, 건물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소유권 이전

서양새마을금고
 전문문의 010-6703-4899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사기·성범죄 / 개인회생·파산 이혼·재산분할·위자료 / 상속

상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보조 조치를 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